# 2015 영상제 기획안

기획의도

인사이드아웃 빙봉, 마리텔 영만아저씨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우리의 동심을 되살려주는 존재. 우리의 순수했던 시절이 생각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착안해 어린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육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다큐를 통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시선과 생각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 세상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릴적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고 마음한켠이 따뜻해 질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계획, 제작방향

### - 러닝타임 : 최대25분

- **장소 및 시간** : 해준이의 일상에 맞추고자 합니다. 해준이의 전반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유치원, 학원 등에 촬영허가를 받고 협의 후, 정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담아내기 위해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하되, 해준이와 해준이의 평소 생활에 지장이 가지않도록 적정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 **촬영규모** : 카메라 2대정도만 사용해 평소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도록 촬영할 계획입니다.

-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사소한 모습까지 모두 담아낸 후, 편집과정에서 함축적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 일상의 모습과 해준이의 인터뷰를 함께 담고자 합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진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학회 ICBA

방송학회 ICBA는 영상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함께하는 학회입니다. ICBA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Broadcasting Academy의 약자로 영화, 다큐멘터리, 모큐멘터리, M/V, 패러디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는 학회입니다. 학회원들은 모두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에 참여하며 체계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작 과정이 원할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여러가지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주축인 미디어 시대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기 14명, 26기 25명으로 총 39명이 함께 한 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학회 ICBA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란 모토에 맞게 머릿 속의 이야기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어렵고 힘든 작업들이지만 영상에 대한 열정하나로 매번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들은 Facebook 한국외대 방송학회 ICBA 페이지, EveryOn tv 앱 방송학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회에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모든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지만, 혹시 페이스북 계정이 없으실 수 있어 몇몇 작품들의 URL을 첨부합니다^\_^.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외대 방송학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ICBAhufs

2014 영상제 다큐멘터리 ‘이맘때쯤 우리’ https://youtu.be/VbhtLdkFdaQ

2014 영상제 단편영화 ‘실화實化’ https://youtu.be/38ycKnT4\_WU

2014 영상제 단편영화 ‘악인;왜 우리는 악에 끌리는가’ <https://youtu.be/FexR7PB8A2E>

## 상영계획

* 방송학회 ICBA 2015 영상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상제는 1년중 저희 학회의 가장 큰 행사로, 선후배가 함께 팀을 이뤄 학교 내외의 모든분들과, 선배님들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2015.11.27 금요일 오후7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대 대강당에서 진행계획입니다.

**\*\*연락망**

|  |  |  |
| --- | --- | --- |
| 감독 | 신지윤 | 010-4508-1146  이메일 choigoyoun@naver.com |
| 카메라 | 유 진 | 010-9676-3824 |
| 허예은 | 010-2750-2171 |
| 작가 | 강다현 | 010-2609-0263 |
| 위다빈 | 010-4169-3979 |
| PD | 여민아 | 010-9963-5185 |
| 이혜인 | 010-4937-7786 |